



광주 찾은 '세계 공연계 대모' 프리 라이젠

“여행 떠날 때처럼 예술도 모험을 즐겨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워 마스터’ 5개 작품 기획

“예술극장, 아시아 공연예술 변혁의 출발점 기대”

“여행을 떠날 때처럼 예술에서도 모험을 즐겨라.”

세계 공연계의 대모로 불리는 프리 라이젠(65)이 29일 광주를 찾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시즌프로그램 ‘아워마스터’ 큐레이터 자격이었다. 벨기에 출신인 그녀는 지난 2012년 아시아예술극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하차했다.

“예술감독직은 물러났지만 항상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었다. 예술극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다. 출발점인 광주에서 좀더 해 한국을, 아시아를, 세계를 비추는 창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공연예술의 변혁의

지점이자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술극장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아티스트, 관객,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그녀는 최근 발표된 개관프로그램들이 컨템포러리 장르에 집중돼 대중과의 접점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컨템포러리 예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들이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관객과 공유하고 싶은 건 모든 예술가의 욕망이다. 결코 관객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다양한 어법으로 관객들과 만날 것이

다. 여행을 떠날 때는 모험을 하면서 왜 예술은 모험하지 못하는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즐기길 바란다. 예술극장은 무거운 과 거버움, 심각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아티스트와 관객, 어린이와 어른 등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돼야 한다.”

프리 라이젠은 개관 페스티벌 이후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시즌프로그램 ‘아워 마스터’ 전에 참가할 5작품을 기획했다.

“개관 축제가 새로운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자리라면 내가 기획한 ‘아워 마스터’에서 초창한 작품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공연 예술사를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예술이, 예술가가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고민하고 작품을 만들어온 작가들을 초청했다. 형

식의 파격만을 꿈 꾸는 게 아니라 혁명적 사고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작품들로 다음 세대에 많은 영감을 준 작가들이다.”

프리 라이젠은 개관 축제를 비롯해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이 아티스트들 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승자만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승자가 아닌 이들의 이야기가 훨씬 흥미롭다. 피나 바우쉬의 작품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고, 내 자신이 거장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듯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는 조금 낯설기는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로서는 데 영감을 주는 작품들이다. 예술극장이 자신만의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서는 데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도시로 큰 걸음 떼다

개관 맞은 아시아문화전당 볼거리·즐길거리 집중조명

대중문화 표절실태 고민도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8월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동력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9월4일 개관한다. ‘21세기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 창조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뿌리내리게할 문화전당에 가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그만큼 크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8월호(238호)에서는 ‘광주, 문화도시로 큰 걸음’을 주제로 문화전당 인프리와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운영프로그램), 축제 등을 집중조명했다. 광주도심의 지형을 바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프라와 풍성한 개관 페스티벌(9월 4일부터 21일까지) 등 문화전당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아꼈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신경숙씨가 표절논란에 휘말린 것을 계기로 문학은 물론 TV 등 대중문화에 만연한 베끼기 실태도 추적했다. 내로라하는 스타 작가와 PD들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표절의 실태와 근절대책을 고민했다.

‘예향초대석’ 코너의 손님은 특별하다. 지난해 최연소(41) 주한 대한민국대사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 대사를 단독으로 만났다. 국내에서 흥기피습을 당했음에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뉴스의 인물에서 화제의 인물,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떠오른 리퍼트 대사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한미관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인연 등 정치와 삶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8월호 신설 코너인 ‘무대와 삶’에서는 부

창부수로 살고있는 노희설·정경아 부부를 만났다. 극단 ‘좋은 친구들’의 창단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의 못말리는 연극사랑을 엿봤다. ‘남도의 장인들의 주인공은 채상장 서신정씨, ‘예향이 만난 이사람’은 ‘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강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세화씨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황토의 고장’ 무안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화산백련지와 드넓은 갯벌 생태공원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빨맛’으로 유명한 나지 등 무안의 모든 것을 담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비규환 사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조정태 개인전--내달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지는 않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은 과연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절망은 어디에서 찾아올까.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닐까.

조정태 작가가 오랜만에 개인전을 연다. 30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나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작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충격으로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과 작품에 대해 반성했다. 그리고 결과물들을 내놓았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 중 자신의 심상을 표현한 ‘천지’ 연작과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몽환’ 연작 등을 위주로 모두 30여 점을 선보인다.

‘천지’ 연작은 사회적 이슈에 치중했던 조

작가의 기존 작업들과는 다른 개인의 정서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한다.

‘몽환’ 연작과 ‘일상적 풍경’ 연작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아비규환의 사회상, 생산과 소비의 대상으로 동원되고 있는 소시민들의 피곤한 삶과 소외감, 사회 속에서 일그러진 인간관계, 짙은 정춘들의 뿌리 깊은 절망감을 표현한 작업이다. 특히 신작 ‘몽환-한 여름 밤의 꿈’은 가로 5m가 넘는 평면작업으로 기존 작가의 익숙한 어법에 풍자와 은유, 상징적 요소를 강조했다.

조 작가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광주민족미술인협회 등 주로 민중미술계에서 활동해 왔으며,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지회장을 지냈다. 개막식은 30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22-80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천지’

5인5색 ‘뒷모습’ 통해 살핀 자기성찰

대인예술시장 ‘한평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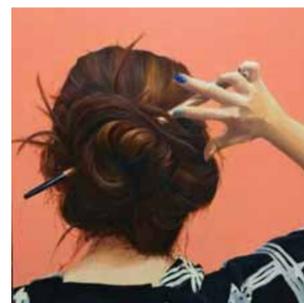
내달 22일까지 ‘등·燈...’전

대인예술시장 ‘한평 갤러리’는 오는 8월 22일까지 ‘등·燈-뒤에서’를 주제로 여섯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초대작가는 문지연, 송가을, 이민경, 이영현, 임수현, 정영소씨 등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6명이다.

그중 이민경씨를 제외한 5명은 ‘뒷모습’을 표제작으로 내놨다. 5인5색의 ‘뒷모습’에서는 풋풋한 20대 여성의 활력 넘치는 젊음과 건강미가 물씬 풍겨난다. 이들은 ‘뒷모습’을 통해 자기성찰과 관점의 전환, 일상의 환기, 세밀작업에 대한 재미 등을 이야기한다.

문지연은 복장과 장신구에 맞춰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는 20대 여성의 미



임수현 작 ‘뒷모습’

적 본능을 그렸다. 이영현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그리는 등 발달한 해금으로 화폭을 가득 채웠다.

임수현은 뒷모습에 진실한 자아를 그려려고 했고, 정영소는 자유분방함을 작품에 담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가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